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



미륵이여, 미래 불이여

이가림

아홉 살 적
까까머리 동승인 양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황한 봄 꽃보라 마구 훑날리던
금산사 마당에 들어섰을 때
모악산 등성이에다 대고 꾸벅 절을 했을 뿐
미륵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네

1층 대자보전보다
2층 용화지희보다
3층 미륵전보다
키가 큰 미륵보살의 모습

얼마나 마음의 귀를 씻고 씻어야
저 강물 같은 숨결을
엿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의 거울을 닦고 닦아야

저 연꽃 같은 미소를
비출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열어야
저 바위 같은 침묵의 말씀을
깨칠 수 있을까

토키는 토키대로
들쭉는 들쭉대로 사는 용화세계
견훤이 꿈꾸었던 평화세상을
언제가 꼭 이루고야 말
미래 불이시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이가림 시인은... 1943년 만주 출생.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내 마음의 협계열차〉 등.

사찰 방문 외국인 “안내문은 어디 있나요”

불교문화사업단, 외국인 방문객 조사… 설명자료 미흡 ‘지적’

서울 종로 조계사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사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문의 부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편의시설 청결도와 내부 불거리의 만족도도 낮게 평가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이 최근 발간한 <2011 국내여행업계와 연계 현황 및 2012 조계사 외국인 방문객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 조사는 인바운드 여행업계와의 연계 현황과 이를 통해 사찰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지난해 여행업체들의 연계로 가장 높은 외국인 관광단체 방문 횟수를 기록한 사찰은 조계사였다. 총 방문횟수 8천여 건 중 조계사에만 3190건이 몰렸고, 불국사

(1484건), 선유사(1161건), 제주 약천사(4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사를 통해 사찰을 방문한 총 외국인 수는 11만 4천여 명으로 조계사에는 3만9천여 명이, 기타

친철도, 유익성은 높은 점수
한국불교 전반 인지도 낮아
템플스테이 홍보관 활용 시급

지역 사찰에는 7만4천여 명이 찾았다. 여행 상품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상당 수가 종로 조계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명암이 갈렸다. 5점 척도로 조사를 진

행한 결과 여행상품 이미지 개선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님과 종무원의 친절(4.09점)·프로그램 유익성(4.07점)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계사 안내문과 설명 부족이 3.19점으로 가장 낮게 집계됐으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청결도(3.46점)·내부 불거리(3.59점) 등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조계사에 대한 안내물 및 설명 자료가 정문 입구에 비치돼야 하며, 편의시설의 청결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조계사 내부 불거리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와 템플스테이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불교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국인 관광객 중 67%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템플스테

이에 대해서는 설문 참가 외국인 중 6.2%만이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행업체들의 템플스테이 홍보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6.7%, 홍보관 소개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에 대해 보고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한국불교문화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객 확보 방안을 위한 정기적인 기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조계사 방문객과의 연계 코스로 지정돼야 하며 공동 홍보 마케팅 실시도 고려해야 한다. 여행사, 호텔, 공항 등 공격적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며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43개 종교단체 세금 52억 원 체납

서울시, 특별징수 추진… 종교계 8천여 만원 납부

개신교계 체납이 가장 높아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조세 정의’를 위해 사회 지도층과 종교단체를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사회지도층 11억9,800만원, 종교단체 8,9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했다.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종교 부지를 취득해 비과세를 받은 후 3년 이내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다.

실제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도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취득·등록세 2,900만원이 추징되자

지금사정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해 왔다. 하지만,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해운 38세금지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징해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범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산업코드 받는다

불화장, 주철장 등 53종… 전승 활성화 기대

불상, 단청, 활자, 범종 등을 제조하는 중요무형문화재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받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각종 전통문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제정·발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는 공예 49종,

음식 4종 등 총 53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등록됐다. 불교관련 무형문화재로는 단청장(42411 도장 공사업), 대목장(4111 단독 및 연립 주택 건설업), 금속활자장(18121 제판 및 조판업), 목조각장(16293 불상, 보살상 등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주철장(2432 범종 등 동주물 주조업), 불화장(90132 비공인 예술가) 등이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

승자와 관련 종사자들은 사업자 등록 후 정부의 각종 전통문화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등 각종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분류로 전통 공예의 전승 활성화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추가 지정되는 중요무형문화재 가능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분류 코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로 사업자 등록, 공장설립 허가,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신종일 기자

‘절전’ 불자들이 먼저 시작해요

불교생명윤리협 포스터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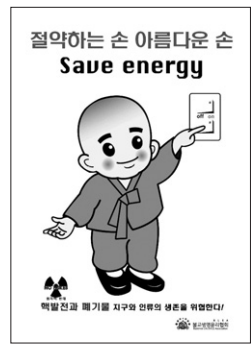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교계가 절전 운동을 전개한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용, 박광)는 ‘절전 포스터’를 제작해 8월 2일부터 전국 사찰과 관공서, 기업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2가지로 제작된 포스터는 아기 부처님과 동자승이 전기 스위치를 끄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절약하는 손 아름다운 손’, ‘절전! 지구를 살린다’는 문구도 함께 수록돼 있다. 또한 ‘핵발전과 폐기물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구호를 담아 탈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전기 등 에너지 절약은 모든 시민의 생활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소속지족의 철학을 담은 불교계부터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 불자들의 실천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성명서

- 백양사 교구총회는 무산되었음을 천명함 -

귀의삼보 하옵고 대덕 큰스님께 사립니다.

지난 8월 3일 백양사에서 교구총회가 열렸으나 무산되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전체 교구총회의원 43명 가운데 유효한 자격을 갖추고 참석한 교구총회의원은 13명 밖에 되지 않아서, 교구총회법 제27조의 의사정족수인 재적과반수 출석요건 22명에 턱없이 부족하여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구총회의원 자격이 있는 33개 말사주지 중 1/3밖에 안 되는 11개 사찰주지만이 겨우 참석하였고 그나마 참석한 사찰들도 온갖 회유와 강요에 못 이겨 마지막에 참석한 말사가 대부분입니다.

백양사 현 집행부 시몽스님은 교구총회가 출석 19명, 위임 5명이어서 성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여 총림 임의위원과 교구선거관리위원 선출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구총회의 개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먼저, 교구총회 소집 통지를 7월 26일자로 발송하였는데, 백양사 본사 국장 중 총무를 제외하고 그 동안 공석이었던 6직을 7월 31일부터 회의 당일까지 급조하여 채웠습니다.

그러나 본사 소임자들은 총무회의를 통한 임명장 수여 및 총무임 보고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변칙적인 인사 구성은 물론이고, 교구총회 소집통지 후에 구성된 것이므로 총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6국장은 유효한 교구총회 참석자격을 갖춘 소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획국장으로 되어 있는 현성스님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교구총회 의원 명부에도 올라있지 않았는데 당일날 참석해서야 자필로 직함과 범명을 적어 넣을 정도였고, 호법국장 스님은 당일 날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임자 가운데서는 본사주지와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6국장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구총회 참석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헌 중법상 중앙총회든 교구총회든 회의 성원을 위해서는 총회의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유효한 것이지, 대리출석이라든가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교구총회법 제27조(의사정족수) ‘교구총회 본회의는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을 보면 출석이라는 부분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임 5명은 교구총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임 5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교구총회 의원명부 하단, 위임이라는 난에 ‘불회사 위임장, 우송사 대리인, 구미 불보사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불회사만 사전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불보사는 구두 위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사는 사실사안으로서 주지임기가 2011년 4월 4일자로 만료되어 주지품신을 올리지 않아 교구총회의원 자격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교구총회 말사주지 명단에도 서명을 하고, 또 위임란에 적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임자 숫자로도 세서서 이중으로 계산하는 변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호법국장으로 거명한 스님과 성원사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몽스님은 위임자란 말미에 두 스님의 범명을 자신이 직접 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성원이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려 온갖 변칙을 썼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절차 또한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어떠한 평계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구총회의 유효 참석자는 13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22명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교구총회 개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그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제방에 알리는 바입니다.

오죽하면 성원을 채우기 위해 중단 원로의원인 암도스님마저 교구총회의원으로 참석하여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종단의 원로로서 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전체 대중의 뜻을 살피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운신해야 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욕을 위해 종단을 유린하고 정계 심리에 처한 시몽스님측과 함께 어울려 불법적인 행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날 시몽스님 측에서 교구총회를 연 목적은 임의위원 임기 만료로 선출직 임의위원을 새로 뽑는다는 명분이었으나, 임의위원의 임기는 총림법에도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통적으로 방장스님과의 협의를 통해 선출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양사 임의는 방장스님이 추대된 이후에 선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시몽스님 측은 현재의 임의위원 대부분이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기를 핑계로 본인에게 협조적인 인물들로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모든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또 다시 총림을 흔들고 불안을 조성하여 그 틈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처부를 감추고 면죄부를 받아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백양사 대중과 거개의 말사들은 시몽스님과 종무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참하지 않았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이번 교구총회를 통해 다시한번 뼈저리게 확인하고 실감했을 것입니다. 금번 교구총회는 확실하게 무산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며, 백양사가 반드시 정상적인 본사가 되도록 기필코 만들어 놓겠습니다.

불기 2556년 8월 6일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구 총회 불참 말사 주지 일동